

# '다독다독' 도서관정책 '인기'

### 임실군, 작은도서관 운영 책읽기 프로그램 등 전개... 주민들 호응 커

임실군의 '다독다독' 도서관 정책이 다양한 책을 접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임실군은 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총 8곳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이들 도서관을 활용해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책 놀이와 동화구연 감자들이 활동하며 활발한 책읽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주 한차례씩 아동센터방문 사서와 함께 책읽기를 하고, '책 읽어주세요'에 신청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일대일로 어린이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책읽기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나만의 독서기록장을 만들어 독서기록을 남기는 가 하면, 도서관 탐방놀이 등 아

이들이 책과 함께 노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작은별 영화관에서 이용 어린이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달부터 10월까지 매달 한차례씩 영화관람과 함께 다른 결말을 만들어 보는 등의 연계활동도 진행 중이다. 다독다독 등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 역시 활발하다.

매주 한권의 선정독서를 읽고 내용을 발제해 독서토론을 하며, 주민들의 책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강화도 등 문화역사 기행과 탐방, 인문학 강연 등 독서토론 외에 활동도 참여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군립도서관에서는 7개의 독서·문

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달 수강생 모집을 마무리한 가운데 유아를 대상으로 '나비잠 책놀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역사랑 과학 이랑', 성인을 대상으로 '캘리그래피' 등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생활 한자교실', '중이접기 자격증반', 어르신 대상 '내 인생의 글쓰기', 가족대상 '일링 가족원예반'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인기를 끌고 있다.

임실군 도서관 정책은 일반주민과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책을 접하고, 취미생활을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조합공동사업법인, 산지유통활성화 '우수'

### 4년연속 선정... 인센티브와 금리차용 지원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평가에서 우수조직으로 선정되었다. 2014년 우수조직, 2015년과 2016년에는 최우수조직으로 선정됨에 따라 4년 연속 남원시 통합마케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3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산지유통조직의 경쟁력 제고와 산지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직별로 평가하는 사업으로, 전국 123개 통합조직(조합법인

등)과 652개 참여조직(농협)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차등과 인센티브 및 패널리가 적용되는 이번 평가는 산지유통조직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통합 사업역량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현장 실사단에 의한 집합 현장평가로 실시되었다.

우수조직 선정에 따라 인센티브와 금리차등 지원으로, 신규자금 100억원과 기존 사용 자금 93억원을 포함한

133억원 중 71억4천만원은 1년간 무이자, 유이자 자금인 121억6천만원은 3년간 연 1%이율을 적용받게 되며, 경영도매시장에 정가·수의매매 1395천만원 출하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 농민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남원시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인 5개 농협 역시 우수조직으로 선정되어 통합조직 출하목표(50%, 50억원) 이상 출하할 경우 통합조직 금리(1%)의 0.5% 인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팔덕 백암마을 생활환경 개선 추진

순창군이 팔덕면 백암마을 주민들의 취약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해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백암마을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 총 3억원이 투자된다.

군은 주민들이 취약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올해 8월까지의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백암마을은 순창의 대표관광지인 장천산에 인접하고 있으며 팔덕면 소재지 배후마을로 생활불편 해소 및 미

관상의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군은 마을의 위생요인과 취약여건 개선을 통한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조성을 골자로 전북도 주거취약지역 생활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응모에 지난해 사업을 최종 확정 지었다. 사업구상부터 계획수립까지 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특징이 있다.

군은 본격적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좁은 마을 진입로 및 안길을 확장하고 가드레일 설치, 안길 하수구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당산나무 쉼터를 정비하고 비위생적 마을 도랑을 생태환경 도랑으로 새로

게 변모시킬 계획이다.군 서화중 농촌주거계장은 "백암마을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민들의 편리 증진에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추진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나후 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주민주도의 체험형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백암마을 취약생활환경 개선 사업이외에도 국가예산화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새마을사업으로 종산두지지구, 인계심초지구 등에 총 27억여원을 투자하는 등 농촌주거개발, 민집정비 등 농촌주거환경사업에 총 8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옥천골에 핀 벚꽃보러 오세요'

### 순창 벚꽃축제, 6일부터 9일까지

제17회 순창 옥천골 벚꽃축제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옥천골 벚꽃축제 제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순창읍 경천로 천변 일원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옥천골 벚꽃축제는 순창 경천변을 따라 약 1.4km구간에 만개한 벚꽃이 장관을 이룬다. 야간에도 벚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등을 설치했다. 특히 경천과 주변 개나리 등과 어울어진 길을 여유롭게 걸으면서 감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돼 즐거움은 두배가 될 전망이다. 6일 첫날에는 어린이 사생대회를

시작으로 비보이, 마술, 색소폰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군민노래자랑 예선이 진행된다. 7일에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과 불꽃놀이, 초대 가수 정해진, 수아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토요일에는 맨손영어잡기 체험 행사, 품바공연, 스타가요퍼레이드가 진행된다. 9일 마지막 일요일에는 '동' 싸운드 공연과 초대가수 공연, 군민노래자랑 결선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옥천골 벚꽃축제 기간에는 색다른 행사로 경천변에서 카누체험도 진행돼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복지시설 리모델링

남원시는 올해 6억원을 들여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과 산업단지 내 시설개선 사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남원시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화장실·식당·기숙사·사위실·휴게실 등의 노후 시설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소규모 기업과 근로자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12개 업체를 선정해 2억원을 지원한다. 시설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근로자 210여명이 쾌적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억여원을 투입하여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정비한다. 애항장려금 지급과 사기진작을 위한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 생태교관생물 퇴치사업 추진

남원시는 생물다양성과 견강한 생태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오는 10일부터 생태계교관 생물 퇴치사업으로 외래어종 수매, 배스 인공산란장 설치, 외래식물 제거 등을 순차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생태계 파괴 주범인 배스, 블루길 등의 생태계교관 외래어종을 수매할 계획이다. 오는 10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10시~12시) 구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내에서 포획한 외래어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수매단가를 냉동은 kg당 3,000원, 냉동되지 않은 것은 kg당 5,000원으로 차등을 두어 수매한다.

또한 배스의 산란철에 맞춰 17일부터 요천에 50여개의 인공산란장을 설치하여 알을 낳도록 유도한 뒤 주2회 산란장내 수정란을 제거함으로써 원천적인 차단 제개로 토종어류 보호에 큰 성과를 이룰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제 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교육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4일 3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단속을 위한 선거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선거사법 단속을 위해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강선미 지도계장을 초청하여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유형별 위반 사례 대응요령' 및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상세한 기준제시로 현장 출동 경찰관 등에게 이해와 호응을 받았다. 순창경찰은 공정한 선거와 엄정한 선거사법 단속을 위해 선거사법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제10기 은빛경로대학 입학식 열려

임실교회 부설 은빛경로대학(학장 송희중) 입학식이 4일 임실교회본당에서 개최됐다. 심민 군수를 비롯해 노인대학생 185명,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단체장 등 21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 2007년 개설된 은빛경로대학은 올해 10기 신입생을 맞아 오는 6월까지 1학기, 11월까지 2학기 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매주 화요일 4시간씩 11개반으로 나눠 노래, 한글, 생활체조, 문화특강, 풍물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희중 학장은 "배움과 나눔을 위해 노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노년복지를 최우선으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남원리의 봄 축제에 물들다

여행을 판다를 나와의 만남

순향제 (5월)

철죽제 (4~5월)

지리산둘레길 (3~5월)

오천번 벚꽃 (4월)

오천자전거리 (5월)

순향남원 사랑의 편지

남원시